

최석정의 《황극경세·성음창화도》에 대한 인식

심소희*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경세훈민정음도설》의 체제와 기존 연구
3. 훈민정음의 재인식
4. 《황극경세·성음창화도》의 비판적 수용과 재창조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조선은 중국 중심의 동북아시아를 천하로 인식하고 중국과 문화적 동질성을 형성하는 유교문화국가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한 華夷論에 근거하여 유교문화의 정수를 보존하고 있는 중국을 中華로 인식한 반면,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북방 유목민족이나 남방의 왜를 夷狄으로 열등시 하였다. 그러나 남방의 오랑캐인 왜(임진왜란 1592~1598)와 북방의 오랑캐인 여진(병자호란 1636)에 의해 40년 간격으로 침략을 당하고, 明을 멸망시킨(1644년) 清이 中原을 완전 장악하여 종전의 중화문화질서가 붕괴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자 조선은 이를 ‘天下大亂’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집권층 학자들은 성리학의 적통임을 자부하면서 조선사회를 주자성리학 이념으로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양난을 겪는 동안 좌절감과 모멸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써 오히려 성리학적 명분론을 강화시키고

* 梨花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자주보강의 논리를 확립시키면서 재건하고자 하였던 조선사회 나름의 자기회복 방법이었던 것이다.¹⁾

그리하여 당시 조선의 사상계는 주자와 주자학을 절대 신봉하고 여타의 사상은 용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당쟁의 빌미가 되어 주자학 대 반주자학의 대치국면을 이루게 되었고 양명학 등은 斯文亂賊으로 몰아 배척되었다. 이는 양란으로 와해된 조선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주자성리학을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지배이념으로 삼고자 하였던 집권층의 처절한 암중모색이었다.

이러한 조선 후기 역사적·정치적 과란의 중심에 崔錫鼎(1646~1715)이 있었다. 그는 仁祖反正²⁾ 功臣 崔鳴吉(1586~1647)의 손자로서 숙종 12년(1671)에 文科에 올라 大提學을 거쳐 領議政을 여덟 번이나 역임한 명문출신의 집권층 학자관료였다.

그러나 최석정이 정치적으로는 주자학에 담고 있었더라도 그의 학문과 사상은 양명학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조부 최명길의 문헌에 양명학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증손자 崔昌大(1669~1720)는 증조부 최명길이 양명학에 독신했다고 밝혀³⁾ 양명학이 가학으로 전수되었을 수 있고, 최석정도 조부가 양명학과가 아님을 역변한 바도 있었으나⁴⁾ 최석정 본인이 양명학자로 분류되는⁵⁾ 南九萬

1) 鄭玉子, 《조선후기문화운동사》 서울: 일조각, 1988년.

2) 학계에서는 조선후기의 분기점을 1623년 仁祖反正부터라고 보고 있다. 인조반정은 士林 중에서도 순수 성리학도로 구성된 서인과 남인 정파가 연합하여 일으킨 정변으로 순수 성리학도의 권력 장악으로 성리학을 국교로 한 조선사회의 사상적 심화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2001. 11쪽)

3) 崔昌大, 《昆倫集》卷20 <遲川公遺事>: “公與溪谷少時講學也. 見陸王之書, 悅其直指本體刊落枝葉 兩公皆深取之 公則中年覺其學術之有庇 屢形於言論.”

4) 《朝鮮王朝實錄》肅宗 43卷(1706): 領議政崔錫鼎陳疏伸白其祖鳴吉事. “臣祖主和之論, 自有本末. 丁卯之事, 意在弭兵, 丙春之事, 憂在挑釁, 及至南漢之事, 夫豈得已而爲之哉? 其時清論, 或主寧以國斃之義, 臣祖以爲: “皇朝固有罔極之恩, 而既有社稷、人民, 何可膠守匹夫之諒?” 憫宗國之垂亡, 不暇顧一身利害, 立朝廷於草萊, 收國力於燬燼, 內綜庶事, 外伸大義, 屈折周旋, 心勞力殫, 仁人君子, 宜有以惻然悲其志矣. 臚列前後屢拒徵兵, 具咨送僧, 被繫北獄之事, 且引詩章之寓意於尊周者, 及先輩長者, 稱述其事業者, 縷縷萬餘言, 答曰: “故相

(1629~1711), 朴世采(1632~1695) 등에게 사사를 받았고, 또한 조선 최대의 양명학자 鄭齊斗(1649~1736)와 친밀하게 교류했던 것은⁶⁾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본고는 최석정이 陽朱陰王⁷⁾하였던 양명학자임을 역설하려는 것이 아니다. 양난 이후 조선사회가 불가피하게 주자학에 매진하였지만, 시대상황에 말미암은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주자학이든 양명학이든, 小中華 의식에서 조선이 바로 中華라는 朝鮮中華 의식으로 대전환되어 조선이 바로 중화문화의 수호자라는 의식이 팽배하였고,⁸⁾ 이에 ‘조선중화주의’의 시대적 요구와 역사적 사명으로 조선 최고 지식인 최석정은 《경세훈민정음도설》을 저술하였던 것이다.

최석정은 《경세훈민정음도설》에서 훈민정음의 가치를 역설하였고, 상수학에 대한 邵雍의 《皇極經世·聲音唱和圖》 해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아울러 훈민정음으로 표음한 《經世正韻·經世正韻圖》를 저술하여 ‘天下大亂’이 되어버린 세상에 獻上하여 문화대국 조선의 저력과 자존감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세훈민정음도설》의 乾冊에 실려있는 <訓民正音>·<訓民

臣和議, 亶出於爲宗社, 尊周之義, 不忘乎心, 蹈必死之地而靡悔, 則予亦稔知. 此豈玄曆婺源輩所敢恣意詆毀者哉?”

- 5) 鄭寅普는 조선 시대의 양명학 수용자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한 바 있다. 첫째는 양명학에 관한 확실한 저서가 있든가 혹은 양명학에 관해 언급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서 양명학과라고 하기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자, 둘째는 양명학을 비난한 말이 있더라도 전후를 종합해 보면 심중에서는 양명학을 신봉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자, 셋째는 양명학에 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주희를 신봉하고 있었음에도 평소 주장의 핵심을 보면 틀림없이 양명학자임을 알 수 있는 자 등의 세 부류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철학》, 예문서원, 1995. 183-184 재인용.)
- 6) 최석정은 《경세훈민정음도설》을 저술한 후 정제두에게 문의하였는데 이에 관한 왕래 서신은 《明谷集》卷13의 <與鄭士仰 又>와 《霞谷集》卷二에 <答崔汝和書>, <與崔汝和問目>, <答崔汝和問目 甲申>, <與崔汝和問目 乙酉> 등이다.
- 7) 겉으로는 주자학을, 속으로는 양명학을 공부함.
- 8) 鄭玉子, 《조선후기 문학사상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년, 《조선후기의 지성사》, 서울: 일지사, 1991년을 참조.

正音準皇極經世四象體用之數圖〉 편과 坤冊에 실려있는 <邵氏皇極經世天地四象體用之數圖〉 편의 내용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그리하여 《경세훈민정음도설》에 노정되어 있는 ‘조선중화주의’를 키워드로 삼아 《경세훈민정음도설》의 편찬 의의를 고찰하고, 아울러 최석정의 《황극경세 성음창화도》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재창조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경세훈민정음도설》의 체계와 기존연구

최석정의 아들 崔昌大(1669~1720)가 행장에서 기술한 바에 의하면⁹⁾, 부친은 字學과 韻書 분야에서 타고난 능력을 가진 듯했으며, 또한 算學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전하였다. 최창대가 꼽은 부친의 저술로 《經世正韻序說》, 《韻會箋要》, 《六書譜》, 《九數略》이 있다.¹⁰⁾ 그 중 《經世正韻序說》은 출판된 책이 아니라 저자 최석정이 출판하려고 손수 써서 엮은 手澤稿本이다. 표지에는 ‘經世訓民正音’이라고 쓰여 있는데, 본문 첫 장에는 ‘經世正韻序說’이라고 쓰여 있고, 또 洪良浩(1724~1802)의 문집 《耳溪集》 권10에는 <經世訓民正音圖說序>라는 제목의 서문이 실려 있다. 그러므로 ‘經世訓民正音’이나 ‘經世正韻’이나 ‘經世訓民正音圖說’은 모두 같은 책의 다른 이름이다. 본고에서는 표지의 이름인 《經世訓民正音圖說》을 따르기로 하겠다.

《경세훈민정음도설 乾·坤》 필사본 2권은 최석정 사후 약 250년이 지나서 뜻밖에 일본에서 발견되었다. 1962년 金智勇이 일본 京都대학 도서관 河合文庫¹¹⁾에서 마이크로필름에 담아왔는데, 오래되어서 벌레 든 곳이 많은데

9) 《昆侖集》 권19 <先考議政府領議政府君行狀>: “……而於字學韻書。殆於天得。沉潛研窮。味之如芻豢。博究諸家異同。辨析其得失。勘正其訛謬。嘗自笑曰。此如嗜土炭。獨知其味。舉世無可與語。惟俟後世子雲耳。著經世正韻序說, 韻會箋要, 六書譜。精於算學。發揮算術源流。著九數略。”

10) 그 외 최석정의 편저에는 法典 《典錄通考》와 儒書 《左氏輯選》이 있고, 저서로는 《禮記》를 분류한 《禮記類編》 18권과 시문집인 《明谷集》 34권 등이 있다.

11) 河合弘民(1873~1919)은 1908년 일본 동양제국대학을 졸업하고 1910년대 조선총독

다가 지질이 삭아서 마이크로필름을 촬영하고 난 다음엔 ‘폴짝’ 무너져서 전모를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렸다고 한다. 귀중한 자료를 보존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애석하다. 일찍이 북한학자 洪起文(1903~1992)은 《경세정운도설》을 복원하고자 천 이백여 매의 원고를 썼다가 월북하는 바람에 분실했다고 하고,¹²⁾ 김윤경, 이승녕도 최석정 저서의 존재는 짐작하고 있었으나 그 본서를 얻어볼 수 없음이 유감이라고 하였다.¹³⁾ 진작에 《경세훈민정음도설》이 국내에 있었다면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되었을 것이고 조선후기 문인들의 정음에 대한 놀라운 식견과 이를 바탕으로 한자문화권에서의 한자와 음운에 대한 연구전통인 정음학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최석정의 《경세훈민정음도설 乾·坤》은 다음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乾冊 經世正韻序說	訓民正音
	十七聲分配初聲圖
	十一音取象八卦圖
	聲分清濁圖
	音分關翕圖
	律呂相乘配合成字圖

부 취조국 참사관실 및 구관제도 조사사업을 하고 있다가 1916년 <조선사연구>로 문학박사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강화도 마니산 외규장각도서 수천 권을 가져다 사료로 쓰고 귀국하여 경도제국대학 도서관에 도서 793부 2160책을 기증하여 河合文庫를 만들었다고 한다.(: 《경세훈민정음도설해제》 5쪽 참조.)

12) 1962년 6월 6일과 8월 13일자 동아일보에 《경세훈민정음도설》을 찾았다는 기사를 보고 북한에서 홍기문이 김지용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 30년 전 무오간본의(1678) 《예부운략》을 보고 그 부록의 저자를 찾다가 그 후 《명곡집》에서 그것이 최석정의 저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 후 방종현씨로부터 《경세정운도설》에 대한 개괄적 해설을 얻어보고서 《예부운략부록》, 《명곡집》 가운데 <答鄭士仰書> 또 그 해설 등을 종합해서 《경세정운도설》을 재현한다고 해서 원고지로 약 일천이삼백 매 썼던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원고는 분실했습니다. 지금 그 원본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 다행했고 한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경세훈민정음도설해제》 4쪽 참조.)

13) 최석정 저·김지용 해제, 《경세훈민정음도설해제》, 19~20쪽 재인용.

終聲十六
 聲分平上去入圖
 音分開發收閉圖
 訓民正音準皇極經世四象體用之數圖
 聲音律呂唱和全數圖
 聲音唱和數三百八十四爻圖
 序韻攝

坤冊 經世正韻五贊

明象
 辨韻
 本數
 稽訓
 述志
 聲音篇
 群書折衷 廣韻三十八字母
 沈氏四聲韻譜
 邵氏皇極經世天地四象體用之數圖
 祝氏聲音韻譜
 韻會三十五字母
 梵字五十母
 劉氏切韻指南
 禮部韻
 三韻通考
 東國正韻
 字彙
 論諺文終聲
 論正韻圖說
 五贊註
 論初終聲閏位
 博物典彙 遼東邊圖
 薊州邊圖

그동안 《경세훈민정음도설》은 김석득¹⁴⁾·배운덕¹⁵⁾ 등 국어학자들에 의

14) 김석득, <經世訓民正音圖說의 易理的構造>,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13호,

해 주로 연구되어 왔다. 김석득은 《경세훈민정음도설·乾》의 <訓民正音>에서 <音分開發收閉圖>까지를 연구범위로 삼았고, 원목차와는 다르게 <訓民正音>·<十七聲分配初聲圖>·<聲分清濁圖>·<十一音取象八卦圖>·<音分關翕圖>·<終聲十六>·<律呂相乘配合成字圖>·<聲分平上去入圖>·<音分開發收閉圖> 등 임의로 순서를 정하여 《경세훈민정음도설》의 역리적 구조를 소개하였다. 배운덕 역시 《경세훈민정음도설·乾》의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고, 김석득의 연구성과에 <訓民正音準皇極經世四象體用之數圖>와 <聲音律呂相和全數圖>를 첨가하여 운도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설명에 주력하였다.

두 학자들에 의해 《경세훈민정음도설》가 처음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특히 《경세훈민정음도설·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척된 바가 없다. 향후 본 저서에 대한 완역작업이 선행되어 국어학계뿐만 아니라 중국어학계의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서 조선후기 정음학에 대한 연구가 진작되어야 할 것이다.

3. 훈민정음의 재인식

조선 초 세종 조에서 비롯된 정음연구의 전통은 곧 막을 내리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성운학자들이 정치적으로 그 기반을 잃었기 때문이다. 집현전에서 육성된 성리학자들은 세조의 왕위찬탈로 死六臣 등 핵심이 숙청당하여 집현전 중심의 학풍의 맥이 끊기게 되었고, 또 燕山君의 훈민정음의 탄압¹⁶⁾으로 인하여 부녀자들이나 하층민들이 쓰는 ‘諺文’으로

1972. 김석득, 《우리말연구사》, 태학사, 2009.

15) 배운덕, <崔錫鼎의 經世正韻研究>,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71호, 1991. 배운덕, <崔錫鼎의 經世正韻연구(外內四攝부터 外內八攝까지)>,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114호, 1995. 배운덕, 《우리말 운서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16) 연산군은 정치적 파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훈민정음의 사용을 엄금하였다. “이제부터 훈민정음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이미 배운 자는 쓰지도 말 것이며 그래도 사용하는 자를 알거든 고발할 것. 또 개인이 간직하고 있는 훈민정음에 관한

전략하여 훈민정음은 더 이상 학문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최석정은 그동안 아무도 주의하지 않았던 훈민정음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원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경세훈민정음도설·훈민정음》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석정이 삼가 생각하건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28자는 列宿의 모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초성 17자에서 牙音은 角으로서 동방의 木에 속하여 만물이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이를 으뜸으로 한 것입니다. 舌音은 徵으로서 火에 속하고, 脣音은 宮으로서 土에 속하며, 齒音은 商으로서 金에 속하고 喉音은 羽로서 水에 속하니 五行의 상생 순서로 차례를 삼았고 중성 11자는 태극·양의·팔괘의 모양입니다.¹⁷⁾

또한 그는 《明谷集》 7권에 수록되어 있는 <禮部韻略後序>에서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훈민정음, 즉 언문은 성왕이 제작하신 것으로서 실로 卦畫 및 書契와 더불어 그 공용이 같고, 소옹의 황극경세성음도와 표리가 됩니다.¹⁸⁾

최석정은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28개 글자가 하늘의 별자리 모양이라고 극찬하고, 이는 卦畫 및 書契와 쓰임이 같다고 하면서 소옹의 《황극경세성음도》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다.

서적을 모두 불살라 버리되 다만 한어의 번역서만은 예외로 한다.(燕山君日記 10年 7日 戊申條: 今後諺文勿教勿學, 已學者亦令不得行用. 凡知諺文者, 令漢城五部摘告其知而不告者, 並隣人罪之, 全上 七月 庚戌條: 諺文, 行用者. 以棄毀制書律, 知而不告者, 以制書有違論斷, 朝士家所藏 諺文口訣書冊皆焚之, 如翻譯漢語之類勿禁.)

17) 《경세훈민정음도설·훈민정음》: “臣錫鼎謹按, 御製諺文二十八字, 卽列宿之象也. 初聲十七字, 牙音角屬東方木象物之始生, 故爲首, 舌音徵屬火, 脣音宮屬土, 齒音商屬金, 喉音羽屬水, 以五行相生之序爲次, 中聲十一字, 太極兩儀八卦之象也.”

18) 《明谷集》卷之七 <禮部韻略後序>: “……臣又竊念世宗大王御製訓民正音, 卽所謂諺文也. 聖王制作之妙, 實與卦畫書契同其功用, 而世無刊本, 傳者絕少, 邵氏經世聲音, 亦與訓民相表裏……”

조선후기 주자성리학을 국교로 삼은 마당에, 게다가 ‘한자 만능’ 시대에 이미 諺文으로 전락한 ‘훈민정음’을 다시 들고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양난 이후 국가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자성리학의 틀을 선택했지만,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 추구한 것은 문화적 예속, 사대주의가 아니라, 조선이 주체가 되고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켜 조선 문화 창달에 기여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경세훈민정음도설·坤》의 〈經世正音五贊·稽訓〉에는 최석정이 구상하는 문명의 구도와 역사관이 집약되어 있는 듯하다.

생각하건데, 우리나라는 檀君으로부터 비롯되었다. 箕子 太師가 封함을 받아 비로소 그 문명을 열었지만, 지역은 외지고 황무하며, 언어는 풍속이 달랐고 백성들은 제 뜻을 펴지 못하였으며, 정교는 거칠고 소박했다. 신라에서 고려까지 아득히 천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눈부시다 세종이시어, 그 도가 천명에 참여하였다. 예악과 문장은 찬란하여 조술할 만하며, 선천에서 어긋나지 않고, 널리 만물의 이치를 아셨다. 우리말을 탐구하시어 마침내 큰 가르침을 창제하시고 이름을 正音이라고 하시니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치고 인도하셨다. 글자 모양은 어떠한가? 篆書와 籀書에서 형상을 취했다. 글자 수는 어떠한가? 하늘의 28개 별자리와 나란히 한다. 환하고 빛나며 정수와 쓰임을 모두 갖추었다. 성음과 울여가 배합되어 글자를 이루었고 중성으로 조화시켜 질서 있게 조직하였다. 글자 수가 만자로 불어나니 본체로부터 쓰임에 이른 것이다. 닭과 개의 울음소리 모두를 형용할 수 있고, 부녀자들과 백성들도 열흘이면 깨우치게 된다. 공은 팔괘를 나눈 것과 나란히 하고, 조화는 울여를 만든 일에 부합된다. 이를 만든 분은 성인이시니 상고시대에 비해도 공이 빛난다.¹⁹⁾ 저 삼황에 짝이 되어 큰 규범을 영원토록 남기셨다. 나는 태사의 소임을 맡아 역사를 기록함이 직분이다. 그 덕을 형용하자니 하늘처럼 높고 그 빛을 그리자니 태양처럼 빛난다. 머리를 조아리며 찬을 지으니 동국의 표상으로 비추어지리라.²⁰⁾

19) 皇墳: 복희 신농 황제 三皇의 전적을 의미하는 三墳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상고시기의 고문을 의미한다.

20) 《경세훈민정음도설·坤》稽訓: “於惟我邦。肇自檀君。大師受封。始闡斯文。地是偏荒。言語異俗。民志不伸。政教拘樸。自羅而麗。隻數千載。赫赫世宗。道參天緯。禮樂文

최석정은 우리나라가 檀君에서 시작하여 箕子에 이르러 그 문명을 밝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역도 외지고 언어·풍속도 다르며 政教도 거칠고 소박했으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시어 세상의 소리를 모두 형용할 수 있게 되었고 평범한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깨우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은 그 공이 八卦와 같고 세종대왕은 伏羲·神農·黃帝의 三皇에 견줄 수 있는 聖人이라고 추송하였다.

조선 초 단군을 혈연적 시조로 삼는 인식이 형성되었으나, 16세기 사림이 등장한 후 성리학에 몰두하는 분위기에서 기자에게 밀리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양난을 계기로 단군조선이 새롭게 조명되어 민족적인 위기를 단군이라는 시조를 내세워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기자도 한국 역사의 시조로만 파악하려는 사림계열의 역사의식에서 벗어나서, 檀君에서 箕子로 이어지는 “檀箕正統論”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²¹⁾

최석정은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적어도 문자와 성운의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대등한 문화대국임을 찬미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 이후 명나라의 멸망 이후 새롭게 등장한 淸에 대해선 조선이 ‘小中華’라는 의식에서 ‘朝鮮中華’로 전환되었다. 즉 명나라가 멸망한 동북아시아 사회에서 유교문화를 담지하고 있는 정통은 조선이 계승하였으므로 조선이 중화라는 의식이 조선중화주의로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관과 문명의 구도를 가지고 최석정은 성음의 이치에 정통한 후 훈민정음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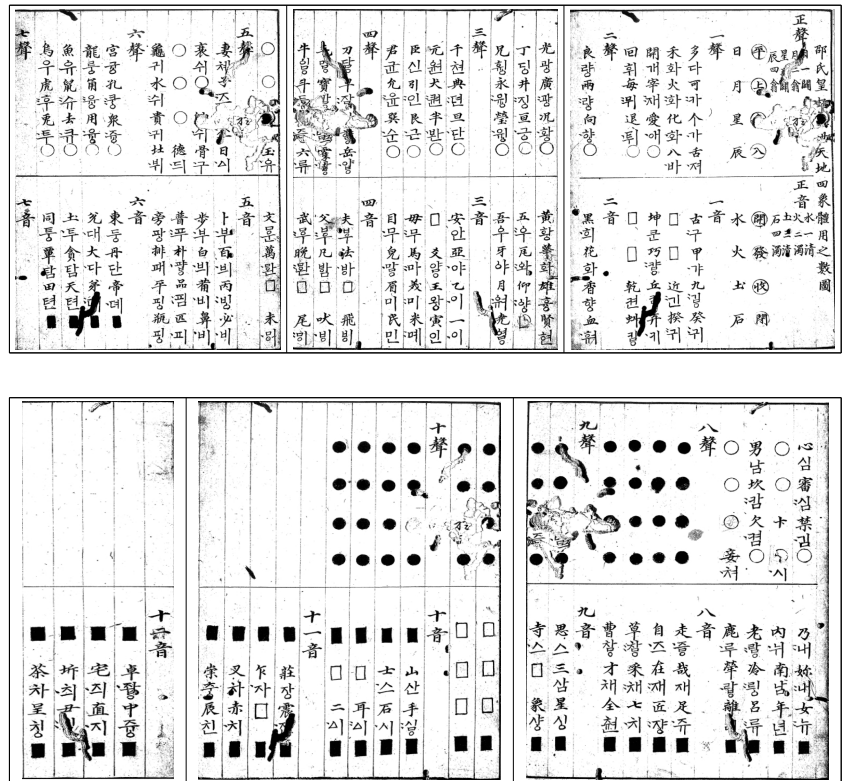
章。粲乎可述。先天不違。知周萬物。究觀方言。遂創大訓。命曰正音。開愚迪蠢。厥體伊何。取象篆籀。厥數伊何。並躡列宿。皦如彬如。既粹既備。聲音律呂。配合成字。叶以終聲。參伍錯綜。數衍于萬。由體達用。鷄鳴狗吠。咸得形容。婦女興臺。旬日可通。功參畫卦。化符造律。作者謂聖。于古有烈。媿彼皇墳。永垂弘式。臣忝太史。載事是職。狀德天高。摹光日曜。稽首作贊。鏡茲東表。”

21) 단군-기자로 이어지는 ‘檀箕正統論’은 洪萬宗(1643~1725)의 《東國歷代總目》, 安鼎福(1712~1791)의 《東史綱目》, 李種徽(1731~1786)의 《東史》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재훈, <조선후기 史書에 나타난 중화주의와 민족주의>, 한국실학학회: 한국실학연구 8호, 2004. 김영심·정재훈, <조선후기 정통론의 수용과 그 변화>, 한국문화연구소: 韓國文化, 2000. 참조)

4. 《황극경세·성음창화도》의 비판적 수용과 재창조

최석정은 훈민정음의 가치를 인식한 후, 邵雍(1011~1077)의 《황극경세·성음창화도》에 훈민정음으로 음을 단 후, 소용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상수학을 재해석하여 나름의 운도를 엮어냈다.

먼저 《경세훈민정음도설·坤》의 <邵氏皇極經世天地四象體用之數圖>를 살펴보자.



이상의 운도에 대해 최석정은 다음과 같이 상세한 해설을 하였다.

내 생각에 정성 28운은 112를 4로 묶은 수이다. 정음 48모는 開와 閉의 두 등에 비록 검정 네모로 쓰여 지지 않는 자리가 있지만 각 한 줄이 하나의 성모가 되어 48이 되는 것은 예전과 같은 것이다. 정성은 실로 중성의 숫자이지만 훈민정음의 32개 음의 기준으로 보면 네 자리가 적다. 생각건대 ㄹ(伊兒) ㄴ(伊應) ㄷ(伊兒伊) ㄹ(伊應伊) 네 자리는 ㅏ(阿)ㅑ(也) ㅓ(於)ㅕ(與)보다 장중하다. 그의 분운도 泰夫廢祭 灰脂微로 □²²⁾ ㄱ ㅈ의 등운에 합치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16섭에서 두 섭이 적어진 것이다. 입성 여러 운에서 屋沃운은 東鍾에 속하지 않고 尤侯운에 속하며, 曷屑운은 寒先운에 속하지 않고 歌麻운에 속한다. 아마도 입성 글자가 옛날에는 중성이 있었는데 현재 중성이 없어진 때문이리라. 정음 48모는 본래 24모에 한 배를 가하여 얻어낸 수이다. 그러나 아음 6모, 후음 4모, 순음 10모, 설음 12모, 치음 16모로서 오음의 청탁이 매우 고르고 정연하지 않다. 漢音 純濁 글자의 평성은 次淸音에 섞였고 상성과 거성은 純淸音에 섞였다. 그러므로 근래의 “揆”는 古淸“甲”의 탁음이고 “乾” “屮”는 고음 “坤” “巧”의 탁음이다. 次濁의 글자는 범어에는 두 개의 성모가 있는데 그러나 漢音에서 상성은 낮게 발음하고 평성은 높게 발음한다. 그러므로 “五” “武”를 청성으로 하고 “�” “文”를 탁성으로 하며 나머지는 모두 기존의 방식에 따른다. 정음 48모는 본래 24모에 한 배를 가하여 얻어낸 수이다. 그러나 아음 6모, 후음 4모, 순음 10모, 설음 12모, 치음 16모로서 오음의 청탁이 매우 고르고 정연하지 않다. 漢音 純濁 글자의 평성은 次淸音에 섞였고 상성과 거성은 純淸音에 섞였다. 그러므로 근래의 “揆”는 古淸“甲”의 탁음이고 “乾” “屮”는 고음 “坤” “巧”의 탁음이다. 次濁의 글자는 범어에는 두 개의 성모가 있는데 그러나 漢音에서 상성은 낮게 발음하고 평성은 높게 발음한다. 그러므로 “五” “武”를 청성으로 하고 “�” “文”를 탁성으로 하며 나머지는 모두 기존의 방식에 따른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의 자연스러운 소리에 합치되지 않고 게다가 端精에는 閉音이 없고 非微에는 收音이 없는데 아마도 모두 정밀하지 않아서이다. 내가 그리하여 포괄하여 다시 도설에 나타내었으니 독자들은 세세하게 헤아려보길 바란다. 이 도표의 글자는 모두 언문으로 漢語에 주를 하였는데 이로써 소용의 뜻을 나타내었다.²³⁾

22) 식별이 어려운 글자이다.

23) 按正聲二十八韻卽一百二十四約之數也, 正音四十八母開閉二等, 雖有黑圈不用之位, 每一行爲一母, 則其爲四十八, 猶自如也. 正聲實爲中聲之數, 而準諸訓民三十二音少四位焉. 意者伊兒 ㄹ 伊應 ㄴ 伊兒伊 ㄷ 伊應伊 四位莊于阿也於與四位而然歟. 其分韻亦以泰夫廢祭灰脂微合于ㄱㅈ支之等韻, 故十六攝少二攝焉. 入聲諸韻屋沃不屬於東鍾而屬於尤

먼저 《경세훈민정음도설·坤》의 <邵氏皇極經世天地四象體用之數圖>와 《경세훈민정음도설·乾》의 <訓民正音準皇極經世四象體用之數圖>의 운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체제상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邵氏皇極經世天地四象體用之數圖>는 최석정이 밝혔듯이 ‘邵雍의 《황극경세·성음창화도》의 글자에 모두 언문으로 漢語의 주를 하여 소용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최석정은邵雍의 《황극경세·성음창화도》에 표기된 글자에 諺文으로 주를 달은 漢語가 어느 시기, 어느 지역, 어떤 음운체계인 지가 자못 궁금하다. 최석정 이후 黃胤錫(1729~1791)도 그의 《理藪新編》 권12 <經世四象體用之數圖>에서 《황극경세·성음창화도》에 훈민정음으로 음을 달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본서의 正聲 112字母와 正音 152字母를 살펴보면 모두 264字母가 되는 데 거기에 反切을 달았다. 이제 了義의 36字母를 가지고 洪武正韻의 31 자모를 참고하고 또한 三韻聲彙의 훈민정음 자모를 취하여 모든 소리를 기록함으로써 漢語의 면모를 보고자하였다.²⁵⁾

황윤석이 <經世四象體用之數圖>에 훈민정음으로 주를 단 漢音은 《洪武正韻》과 《三韻聲彙》의 음을 고려하였다고 했지만 황윤석이 염두에 둔 漢音은 이보다 더 현실적인 중국한자음, 俗音이었던 것 같다.²⁶⁾ 최석정(1646~1715)과 황윤석(1729~1791)이 모두邵雍의 《황극경세·성음창화도》에 훈민정음으로 주음하였으므로 시간적 격절을 감안하여 각자 어떤 한어의 음운체계를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비교 연구는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둘째, <邵氏皇極經世天地四象體用之數圖>에서 正聲·正音의 상수역학으로 계산된 음운체계의 수는 다음과 같다.

25) 《理藪新編》 권12 <經世四象體用之數圖>: “按本書正聲字母一百一十二, 正音字母一百五十二, 凡二百六十四母 所以爲反切也. 今以了義字母三十六, 參之洪武字母三十一, 又取三韻聲彙訓民正音字母, 諸聲錄之以見漢語大略耳.”

26) 심소희, <황윤석의 정음관 연구1>, 중국어문학연구회: 중국어문학논집 제62호, 2010. 참조.

正聲: ① 有字 + ○ + ● 160
 ② 有字 + ○ 112
 ③ 有字 83
 正音: ① 有字 + □ + ■ 192
 ② 有字 + □ 152
 ③ 有字 112

그러나 최석정은 <訓民正音準皇極經世四象體用之數圖>에서 다음과 같은 음운체계의 수를 설정하였다.

正聲: ① 有字 + ○ + ● 160
 ② 有字 + ○ 120
 ③ 有字 98
 正音: ① 有字 + □ + ■ 192
 ② 有字 + □ 144
 ③ 有字 83

최석정이 상수역학으로 계산된 음운체계는 소용과 숫자도 다를 뿐만 아니라 글자도 대폭 수정하였다.

正聲	邵雍				최석정				正音	邵雍				최석정			
一 聲	多	可	个	舌	多	可	个	○	一 音	古	甲	久	癸	古	甲	九	癸
	禾	火	化	八	禾	火	化	○		□	□	近	揆	○	○	乾	蚘
	開	宰	愛	○	魚	鼠	去	○		坤	巧	丘	棄	坤	巧	丘	棄
	回	每	退	○	無	羽	具	○		□	□	乾	蚘	五	牙	月	堯
二 聲	良	兩	向	○	良	兩	向	勻	二 音	黑	花	香	血	東	卓	中	帝
	光	廣	況	○	光	廣	況	霍		黃	華	雄	賢	大	宅	直	田
	丁	井	亘	○	宮	孔	衆	六		五	瓦	仰	□	土	坼	丑	天
三 聲	兄	永	瑩	○	龍	甬	用	玉	三 音	吾	牙	月	堯	南	姪	女	年
	千	典	旦	○	○	○	泰	○		安	亞	乙	一	卜	百	丙	必
	元	犬	半	○	○	○	태	○		□	爻	王	寅	步	排	平	鼻
四	臣	引	良	○	妻	弟	四	○	四	母	馬	美	米	普	朴	品	匹
	君	允	巽	○	龜	水	貴	○		目	兒	眉	民	母	馬	文	民
	刀	早	孝	岳	千	典	旦	舌		夫	法	□	飛	走	莊	震	足

聲	毛	寶	報	霍	元	犬	半	末	音	父	凡	□	吠	曹	崇	辰	匠
	牛	斗	奏	六	臣	引	良	日		武	晚	□	尾	草	又	赤	七
五聲	○	○	○	玉	君	允	巽	律	文	萬	□	未	○	○	○	○	
	妻	子	四	日	宜	鮮	義	○	卜	百	丙	必	黑	花	香	血	
	衰	○	帥	骨	垂	委	卦	○	步	白	備	鼻	黃	華	雄	賢	
六聲	○	○	○	德	才	宰	意	○	普	朴	品	匹	安	亞	乙	一	
	龜	水	貴	北	灰	軌	晦	○	旁	排	平	瓶	○	○	王	寅	
	宮	孔	衆	○	行	井	命	益	東	丹	帝	■	三	山	手	星	
七聲	龍	雨	用	○	兄	永	覓	役	兌	大	弟	■	○	○	石	象	
	魚	鼠	去	○	丁	等	亘	德	土	貪	天	■	老	冷	離	禮	
	烏	虎	兔	○	弘	廻	瑩	國	同	覃	田	■	○	○	耳	○	
八聲	心	審	禁	○	刀	早	孝	○	乃	妳	女	■	○	○	○	○	
	○	○	○	十	●	●	●	●	內	南	年	■	○	○	○	○	
	男	坎	欠	○	牛	斗	奏	○	老	冷	呂	■	○	○	○	○	
九聲	○	○	○	妾	●	●	●	●	鹿	犖	離	■	○	○	○	○	
	●	●	●	●	廉	忤	念	妾	走	哉	足	■	○	○	○	○	
	●	●	●	●	凡	范	欠	法	自	在	匠	■	○	○	○	○	
十聲	●	●	●	●	心	審	禁	○	草	采	七	■	○	○	○	○	
	●	●	●	●	○	○	○	○	曹	才	全	■	○	○	○	○	
	●	●	●	●	○	○	○	○	思	三	星	■	○	○	○	○	
十一聲	●	●	●	●	●	●	●	●	寺	□	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十二聲	●	●	●	●	●	●	●	●	■	山	手	■	●	●	●	●	
	●	●	●	●	●	●	●	●	■	士	石	■	●	●	●	●	
	●	●	●	●	●	●	●	●	■	□	耳	■	●	●	●	●	
十三聲	●	●	●	●	●	●	●	●	■	□	二	■	●	●	●	●	
	●	●	●	●	●	●	●	●	■	莊	震	■	●	●	●	●	
	●	●	●	●	●	●	●	●	■	乍	□	■	●	●	●	●	
十四聲	●	●	●	●	●	●	●	●	■	叉	赤	■	●	●	●	●	
	●	●	●	●	●	●	●	●	■	崇	辰	■	●	●	●	●	
	●	●	●	●	●	●	●	●	■	卓	中	■	●	●	●	●	
十五聲	●	●	●	●	●	●	●	●	■	宅	直	■	●	●	●	●	
	●	●	●	●	●	●	●	●	■	坼	丑	■	●	●	●	●	
	●	●	●	●	●	●	●	●	■	荼	皇	■	●	●	●	●	

그 외 邵雍은 正聲의 음이 없는 글자를 “○●”, 正音を “□■”로 표기하였는데, 최석정은 正聲과 正音を 모두 “○●”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최석정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세훈민정음도설·乾》의 <聲音律呂唱和全數圖>를 저술하였다. <聲音律呂唱和全數圖>는 《경세훈민정음도설·乾》 108쪽 가운데 75쪽인 70%의 분량을 차지할 만큼 최석정이 역점을 두었던 부분이다. <聲音律呂唱和全數圖>²⁷⁾의 내용분석을 통해 최석정이 견지하고 있는 정음관의 면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 말

최석정은 숙종연대 영의정을 여덟 번이나 역임한 명문관료로서 조부 崔鳴吉(1586~1674), 부친 崔後亮(1616~1693)의 맥을 잇는 집안대대로 소론계 대표 주자였다. 기존학계에서는 조선후기의 정치상황을 주자학의 명분론을 중시하던 老論과 양명학과 연계를 맺고 실용적 학문관을 견지했던 少論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²⁸⁾ 하지만 노론이든 소론이든, 주자학이든 양명학이든, 당시의 집권층 학자들은 양난 이후 국가 재건이 급선무였고, 천하대란의 상황에서 조선중화주의를 이룩하고자 하는 시대적 소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본고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러한 의식은 최석정의 《경세훈민정음도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조선 최고의 지식인 최석정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중화주의의 수호자임을 천명하기 위해 세상에 《경세훈민정음도설》을 헌정하였던 것이다.

27) 운도는 모두 32도이고 각 도는 모두 384음이 갖추어져 있다. 外8攝은 一過 二壯 三泰 四觀 五解 六井 七剝 八謙이고, 內8攝은 一豫 二蒙 三履 四晉 五頤 六恒 七復 八臨이다. 내 생각에 매 운마다 一關의 글자는 開口 外轉이고, 二翁의 글자는 合口 外轉이며, 三關의 글자는 開口 內轉이고, 四翁의 글자는 合口 內轉이다. 그러므로 一關 二翁을 外라고 하고, 三關 四翁을 內라고 하는 것이니 열람자는 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圖凡三十二 每圖各具三百八十四音 外八攝 一過 二壯 三泰 四觀 五解 六井 七剝 八謙 內八攝 一豫 二蒙 三履 四晉 五頤 六恒 七復 八臨按每韻一關之字開口外轉 二翁之字合口外轉 三關之字開口內轉 四翁之字合口內轉 故一關二翁謂之外 三關四翁謂之內 覽者詳之.)

28) 김영주, <소론계(少論系) 학인의 언어의식 연구(1)-『정음(正音)』 연구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회: 동방한문학 27호, 2004, 김동준, <소론계 학자들의 자국어문 연구활동과 양상>,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 35호, 2007. 참조

최석정 사후 250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된 《경세훈민정음도설》은 필사본으로서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식별하기 어려운 문장과 글자가 적지 않았지만, 《경세훈민정음도설》에는 최석정의 ‘정음’에 대한 놀라울 만큼 높은 식견이 노정되어 있었다. 최석정은 邵雍의 상수학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訓民正音準皇極經世四象體用之數圖>를 설정한 후, <聲音律呂唱和全數圖>를 저술해내었다. 이는 다름 아닌 문화의 수용-변용-재창조 순서로 진행되는 문화 진화과정이라고 보여진다.

우리 선조들은 숙명적으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으면서 중국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또 독창성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문화수용 방식은 오늘날 세계화 글로벌시대에 우리의 주체성을 망각하고 무방비 무개념으로 타문화 수입에 급급한 현 시점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 姜信沆(1988), 『國語學史(增補改訂版)』, 普成文化社.
김석득, 《우리말연구사》, 서울: 태학사, 2009.
배윤덕, 《우리말 운서의 연구》,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汪壽明 選注, 歷代漢語音韻學文選, 上海古籍出版社, 1986.
俞昌均(1962), 經世正韻攷, 『論文集(靑丘大)』 5.
鄭玉子, 《조선후기문화운동사》 서울: 일조각, 1988年,
鄭齊斗, 韓國思想大全集 《霞谷集》, 서울: 良友堂, 1994
崔錫鼎 著 金智勇 해제, 《經世訓民正音圖說》, 서울: 명문당, 2011.
崔錫鼎, 《明谷集》 2, 서울: 태학사, 1972.

<Abstract>

Linguistic thought of Choi, Sok-Jong

Shim, Sohee

Choi Suk-Jong(1646-1715) was highly reputed bureaucrat who held prime minister posts 8 times during King Sookjong's reign. Ruling scholars were impassioned to rebuild the nation and accomplish the Joseon Junghwa Ideology(朝鮮中華主義)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壬辰倭亂) and the Manchu's invasion in 1636(丙子胡亂).

Intellectual Choi tried to recover self-esteem as a guard of the Junghwa Ideology(中華主義) by writing the 《Kyeongsae Hunminjungumdoseol (經世訓民正音圖說)》. 《Kyeongsae Hunminjungumdoseol (經世訓民正音圖說)》 was hand copied and not in good condition to understand cryptic sentences and letters. However, his insight on correct pronunciation was outstanding. He criticized So-ong(邵雍)'s Theory of Yi(易), theorized 《訓民正音準皇極經世四象體用之數圖》 and wrote 《聲音律呂唱和全數圖》. Evoluntary process of culture was shown through acceptance-modification-recreation.

主題語 : Joseon Junghwa Ideology(朝鮮中華主義), Japanese invasion of 1592(壬辰倭亂), Manchu's invasion in 1636(丙子胡亂), Choi Suk-Jong, Kyeongsae Hunminjungumdoseol (經世訓民正音圖說), Junghwa Ideology(中華主義)

투 고 일 : 2012. 1. 10. / 심 사 일 : 2012. 1. 20. ~ 2012. 2. 10. / 게재확정일 : 2012. 2. 17.